

지역 경제단체 “공부하는 CEO 모십니다”

광주상의 경제포럼·경총 금요조찬 등 성황
업계 동향·정보교류·인맥형성 등 이점도

경기 불황 타개를 위해 광주 지역 기업 최고경영자들은 회사 업무 외 시간을 투자해 지역 경제단체에서 실시하는 포럼에 참석하는 등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자기계발과 기업 경영, 업계정보와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른 시간이지만 조찬을 겸한 포럼은 기업인들 사이에서 인맥도 넓히고 정보와 유행을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킹 자리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23일 오전 10시30분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 4층에는 광주상의에서 주관하는 200 차 광주경제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230여명의 지역 기업인과 경제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사로 초청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는 “금전적인 것만을 좇아 일을 하는 것보다 일 속에서 올바른 가치를 강출하고 시련을 지혜롭게 극복하고자 함께 노력하는 것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밝혔다.

스타트업 모의 IR & 코칭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유기호)는 23일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지역 유망스타트업 모의 IR 및 피칭 코칭’ 행사를 개최했다.

스타트업 모의 IR 및 코칭 행사는 센터 보육기업 5개사, 중소기업청 추천기업 3개사, 광주지식재산센터 추천기업 1개사 등 총 9개사의 모의 IR을 진행했다. 실전 IR에 참여하기 전 투자자 시각에서의 피드백을 제공해 개선점이나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돋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행사는 지역 유망 스타트업 9개사와 센터 펀드를 운영하는 현대기술투자, 엘엔에스벤처캐피탈과 센터 애셀러레이팅을 전담하는 테크바이아, 로우파트너스 등 산사역 7명과 청중 30여명이 참가했다.

사전 평가를 통해 선정된 지역 유망 스타트업 9개사는 5분 발표, 15분 코칭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현재 실무에서 활동 중인 투자자 관점에서의 맞춤형 투자유치 조언은 창업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유기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앞으로도 투자유치 행사를 지속적으로 기획해 광주 지역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역량강화 등 투자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애란 기자

또 “자본주의는 인도주의가 뒷받침돼야 성공 가능하며, 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도록 돕겠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에서 열리는 조찬 및 점심 간접회 광주상의 광주경제포럼과 광주경영자총협회의 금요조찬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경제단체의 조찬포럼 개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경영 정보 제공·교류와 식사를 하며 인맥관리 기회 제공이다.

광주경제포럼은 광주상의가 주관하고 광주시 후원으로 개최되고 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 실시하며, 죄신 경제·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1997년 7월부터 시작, 200회 개최됐으며 참석 인원만 3만여명에 달한다.

광주경총의 금요조찬포럼도 빼놓을 수 없다. 27년동안 1,341회 진행됐으며 참석자는 13만여명에 달한다.



광주상의는 23일 오전 10시30분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에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기업인의 인생과 가치관’을 주제로 200차 광주경제포럼을 열었다.

지난 19일 열린 금요조찬포럼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 그길을 가다’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참석자들도 포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 업무 전 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새로운 인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경영에 접목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도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조찬 포럼은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혁신기술, 업계 흐름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며 “앞으로 지역 경제와 밀접한 산업과 신규 아이템과 강사를 선정해 교육의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23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9층에는 광주 지역 최초로 네스카페 둘째구스토 캡슐커피 전문매장이 입점했다. 에스프레소, 라떼, 아이스티 등 30여개 맛의 캡슐을 즐길 수 있다.

KT, AI 사업 박차…기자기니사업단 출범

KT가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인공지능(AI) 분야 전문조직인 ‘AI테크센터’를 선보인 데 이어 인공지능 TV ‘기자기니(GIGA Genie)’를 전담하는 ‘기자기니사업단’이 새롭게 출범했다고 23일 밝혔다.

신설된 기자기니사업단은 기자기니 마케팅과 함께 신규 서비스 개발, 사업 체류 등을 통해 AI 생태계 조성을 맡는다.

AI테크센터에 이어 기자기니사업단이 출범함에 따라 KT는 AI 분야에서 전략 수립, 기술 개발 및 사업모델 발굴,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 모든 영역을 갖추게 됐다. 현재 KT는 AI와 관련해 13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연내 50여명을 추가 채용해 조직뿐 아니라 인력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황애란 기자

성공 창업 사례 공유·방향 제시

광주창조센터, 내일 청년창업 콘서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유기호)와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단장 이인화)은 지역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25일 오후 2시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청년창업분야의 CEO와 함께하는 ‘성공 CEO가 들려주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창업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대 이벤트로 언더그라운드 그룹 ‘부르제이’의 공연을 비롯해 푸짐한 경품추첨 이벤트도 준비했다.

사전 행사 참가 등록은 토크쇼 전용 웹페이지(<http://www.offmix.com/event/100313>)를 통해서 선착순 100명을 접수한다. 사전 접수 후 현장에 참여한 청중들에게도 기념품을 제공한다.

현장에는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와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의 창업지원사업 사례들을 전시해 창업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LH광주전남본부 고흥 남계택지지구 공급

점포 등 12필지 포함 점포상업지구 총 29필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본부는 고흥 남계택지개발지구 내 상업용지 등 29필지를 공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고흥 남계지구는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금암리 일원으로 전체 14만㎡에 수용인구 2,000여 명으로 계획돼 있다.

고흥읍 남서쪽에 위치해 국도 27호선에 연접하고 있어 전남 동부권지역과 연계성이 뛰어나다.

또 고흥군 청사와 등기소가 지구 내로

/서미애 기자

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 손해평가인 교육

신속 정확한 농작물 재해 평가 농업인 지원

NH농협손해보험 전남총국(총국장 서윤종)은 22일부터 24일까지 농협전남본부, 광주본부, 진도농협 회의실에서 2017년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NH농협손해보험 농업보험 지급심사팀 백종일 차장과 이지원 과장을 강사로 초청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 실무능력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농작물 피해조사, 주요 피해유형 및 사

/황애란 기자

SALE

가구도매물류·싼값 가구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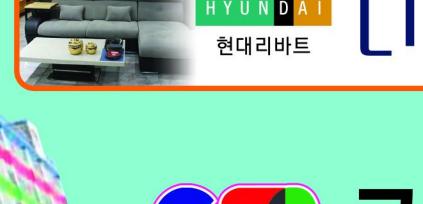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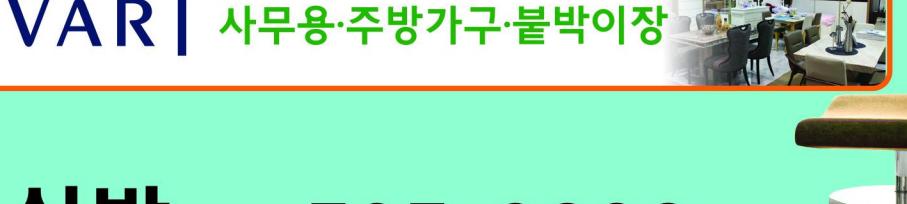
장농·흙·돌침대·소파·식탁·거실장·원목가구



LIVART 사무용·주방가구·불박이장



HYUNDAI 현대리바트













GS8
금실방

2,000평 광주임동성당뒤

062) 525-2630

신문보고 전화 주신분 10% 할인 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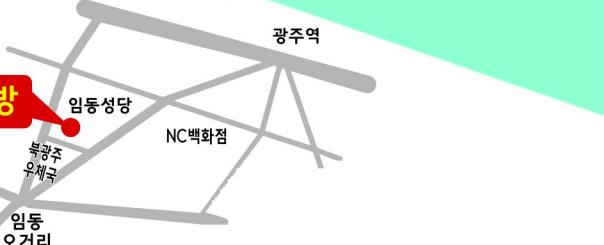
NAVER



광주금실방



검색



금실방
임동성당
봉강주 우체국
임동 오거리
NC백화점
광주역